

다니엘서 - 제76번

예언의 봉인 해제: 1856년에 있었던 빛의 거부와 그 결과

Jeff Pippenger

2024-02-09

1856년에 "일곱 때"의 빛이 봉인이 풀렸고, 1863년에는 그 빛이 거부되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 빛을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가져왔고, 여로보암은 그 빛을 거절했다. 이사야는 같은 빛을 악한 왕 아하스에게 가져왔고, 그도 그 빛을 거절했다. 실로아 연못과 관련된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로보암(북쪽)과 아하스(남쪽)의 왕국들은 각각 기원전 723년과 677년에 북쪽의 왕에 의해 노예로 사로잡혔다.

아론의 반역 때의 모세, 아하스 치하의 이사야, 그리고 여러 왕들 아래에서 활동한 예레미야는 말세의 반역 속에서 빛의 사자들을 대표했던 밀러주의 역사 속 신실한 자들을 상징했다. 1863년의 '첫' 말세 위기와,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법)과 관련된 '마지막' 말세 위기는 이 모든 예언적 선들에 의해 대표된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자신의 책임에서 배도한 선지자를 상징하며, 결국 배도한 개신교와 같은 무덤에 묻히고 만다. 그의 죽음과 매장은 그가 베델의 거짓 선지자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일요일법령 때 교황권(앗수르 왕)에게 정복당하는 심판은, 여로보암의 북왕국과 아하스의 남왕국의 흠어짐으로 예표되었으며, 유다 출신 선지자의 운명과도 일치한다. 그는 '사자'와 '나귀' 사이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며,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교황권이다.

그가 떡을 먹고 마신 뒤에, 그가 데려왔던 그 선지자를 태우려고 나귀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그가 길을 떠나 가다가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고, 그의 시체는 길에 내던져졌으며, 나귀는 그 곁에 서 있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 마침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내던져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와서 늙은 선지자가 살던 성읍에 이 일을 알렸다. 그를 길에서 데려왔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여호와와 말씀의 거역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가 찢기고 죽임을 당하였다" 하였다. 그리고 그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워라" 하니,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그가 가 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내던져져 있었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다시 데려왔고, 그 늙은 선지자는 그를 애곡하고 장사하려고 성읍으로 갔다. 그는 자기 묘실에 그의 시체를 안치하였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이르되, "아아, 나의 형제여!" 하였다. 그를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그 묘실에 나를 묻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는 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대적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라." 열왕기상 13:11-32.

유다의 선지자는 두 상징 사이에서 죽었다. 사자는 바벨론의 상징이며, 마지막 때의 현대 바벨론은 북방 왕으로, 다니엘서 11장 45절에서 아무도 돕는 자 없이 그의 종말에 이른다. 그의 권위의 표는 태양 숭배인데, 이것은 네 번째 가증한 일이며, 에스겔 8장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네 번째 세대가 태양을 향해 절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밀러는 그의 꿈에서 보석들이 흩어지고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상징하던 그 보석함 자체도 또한 산산이 찢겨 나갔음을 보았다.

재림주의의 세 번째 세대에 이르러, 이른바 성경의 현대 번역본 사용을 도입하는 일이 재림주의 지도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 이른바 현대 번역본들은 죄의 사람의 신학자들과 배도한 개신교가 선전하는 부패한 사본 집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밀러의 상자는 변질되지 않은 사본에서 번역된 킹 제임스 번역본이었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네 번째 세대에 이르렀을 때, 그 교회는 로마 교회와 그 딸들의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했다. 재림주의 진영은 수년 동안, 잠든 양떼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들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단지 '옵서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 사악한 연합체의 정관은 '옵서버' 지위가 완전한 투표권을 가진 회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들이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 두 차례나 "죄의 사람"에게 금메달을 수여했다. 적어도 하나의 메달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톨릭의 이해가 새겨져 있었는데, 예수가 돌아올 때 지상에 발을 디디는 모습을 묘사했고, 그리스도 뒤에는 가톨릭식 태양 광배가 들어 있었으며, 넷째 계명에 대한 가톨릭식 축약, 곧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법정 절차에서(이는 법적 공표에 해당한다), General Conference의 회장은 증언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과거에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자신의 교회는 오래전에 그 믿음을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던져 버렸다고 밝혔다.

네 번째 가증함(세대)은 예루살렘 교회의 스물다섯 지도자들이 태양에게 절하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가증한 일들은 입구에 세워진 질투의 형상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시작을 알렸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결국 배도한 개신교와 함께 묻히게 되며, 사자(바벨론)가 그를 죽이는데, 이는 그가 배도한 개신교의 방법론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며, 그로 말미암아 환상을 세우는 이가 로마임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죄의 사람의 상징에 의해 확립된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 죄의 사람 편에 서게 된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혼란해지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Kress Collection, 105.

유다의 선지자는 그를 '형제'라고 칭한 벤엘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묻혔고, 그는 두 가지 상징 사이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사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나귀'는 이슬람의 상징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2001년 9월 11일에 대한 침묵을 통해, 셋째 화의 이슬람이라는 주제가 한밤중의 외침, 늦은 비 메시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보여 주었다. 늦은 비의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다! 늦은 비는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능한 천사가 강림하고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시작되었다. '비'는 하나의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이슬과 단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빛의 조각들을 거두어 모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귀히 여길 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61:11 인용.]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7권, 984.

“온 땅”은 2001년 9월 1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만, 거기서 시작되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는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가 인식되어야 한다. “recognize”라는 단어는 “그 지식을 시인하든 아니하든,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회상하거나 되찾는 것. 전에 그를 본 적이 있거나 일찍이 그를 알았다는 것을 회상할 때, 우리는 멀리서 사람을 알아본다. 우리는 그의 용모나 목소리를 알아본다.” 웹스터의 1828년 사전.

라오디게아적인 재림교인이 2001년 9월 11일에 임한 늦은 비의 기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과거에 동일한 신적 권능의 나타남을 보았음을 인정하는 경우뿐이다. 1840년 8월 11일, 이슬람의 둘째 화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강림했다. 그 역사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의 셋째 화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강림함으로써 정확히 되풀이되었으며, 셋째 화의 이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라비아의 들나귀에 실려 현대 바벨론의 사자가 초래하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봉합된 책을 읽지 못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밀러주의 역사의 반복을 보지 못한다. 이는 그 인식이 ‘줄에 줄을’이라는 늦은비의 방법론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이 마지막 때에 반복된다는 개념은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방법론으로는 뒷받침될 수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연합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 범위와 전례 없는 권능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다. 1840~44년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일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모든 선교지에 전파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대쟁투, 611.

현대 이스라엘의 눈먼 지도자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진리를 그들의 방법론에 의해 거부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주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가장 먼저 느낀 곳이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고 백성의 영적 유익을 수호하는 자로 서 있던 장로들이 맡겨진 책무를 저버렸다. 그들은 예전처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굳이 바라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이러한 말들은 그들의 불신을 더욱 굳게 하고, 그들은 말한다. 주님은 선도 행하지 않으시고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으로 별하시기에는 너무 자비로우시다. 이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외침이, 다시는 나팔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과를,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 주지 않을 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짓지 않으려는 이 병어리 개들이

모욕당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의로운 징벌을 당하는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한다. 증언, 5권, 211.

예루살렘의 무지한 자들을 다스리는 학자들은 라오디게아적 영적 맹목 때문에 늦은 비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부패한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추론이 내리는 결론들 때문에 옛 시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나타남도 부인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라기 3장은 언약의 사자가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실 때, 그 제사가 옛날과 같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참된 증인이 선언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 이것이 참된 시금석, 곧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그의 사랑으로 너를 채우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는 이슬과 비와 햇빛을 받아 마땅히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했으나, 하나님의 살피심이 그 위를 살펴보실 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우리 교회들에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가! 참으로, 각 개인에게도 엄중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은 놀랍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끝이 나고 말 것이다. 그들이 '나는 부자요, 재물이 늘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동안, 교회들과 우리의 기관들은 연약함에서 더 큰 연약함으로, 차가운 형식주의에서 죽음 같은 무감각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된 증인은 또 말씀하신다.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과연 자기들의 상태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인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것이지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고백과 회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는 그 능력의 나타남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눈먼 가운데 그것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으로만 보게 될 것이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으로 보고, 그것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굳게 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반대할 것이다. '왜,'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 일을 해 왔는데도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겠는가?' —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별의 경고와 간청에 응답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는 부요하고 재물이 늘어나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재능과 오랜 경험은, 그들이 자신을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 아래 두고 성령의 부여하심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빛의 통로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출 때, 주께서 그들을 높이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분별력 있는 사람들—그의 영의 은혜로 부요한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다. 그들의 강하고 이기적인 성품의 특질, 그들의 완고함은 세상의 빛이 비추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12월 23일.

유다의 선지자의 죽음은 예언적 역사의 비전을 정립하는 예언적 상징인 현대 바빌론의 "사자"와 또한 "나귀"에 의해 표상된다. 성경에서 이슬람에 대한 첫 언급은 이스마엘이 "야인"으로 소개될 때이다.

그리고 그는 사나운 사람이 될 것이며,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6:12.

성경의 최초 언급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씨앗에는 온 식물을 결실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DNA가 들어 있듯이, 어떤 상징의 모든 특성이 그 최초 언급 속에 담겨 있음을 보여 준다. '들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라비아 야생 나귀'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리의 성경에서 '나귀'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

죽은 뼈들을 살려 그들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는 에스겔 37장의 메시지는 셋째 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의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마지막 날들의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이다. 화이트 자매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개선 입성이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를 대표했다고 직접 가르친다.

한밤중의 외침은 성경의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지만, 주로 논증에 의해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과 더불어 영혼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따랐다. 의심도, 의문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개선 입성하셨을 때, 절기를 지키려고 나라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감람산으로 몰려갔고, 예수를 호위하던 무리에 합류하자 그 순간의 감동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함성을 더욱 크게 하는 데 일조했다. [마태복음 21:9.] 이와 같이 재림주의자들의 집회에 몰려든 불신자들도—어떤 이는 호기심에서, 어떤 이는 단지 조롱하려고—'보라, 신랑이 오신다!'라는 기별에 수반된 확신케 하는 능력을 느꼈다. 예언의 영, 제4권, 250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리는 최종 메시지이며, 그 안에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 포함된다. 봉인이 풀린 메시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곧 마지막 때의 한밤중의 외침을 예표하신 그때에, 그분은 '나귀'에 실려 가셨다(그분의 메시지가 실려 갔다).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최종 메시지는 이슬람에 의해 실려 간다.

이슬람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난폭한 자일 것이며, 이는 아라비아의 야생 당나귀로 상징된다. 그리고 보려는 사람이라면(보려 하지 않는 이들도 많지만) 지금 이슬람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이 난폭한 광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내세에 어떤 큰 성적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살을 기꺼이 감행하는 것은 사탄적인 광기다. 이슬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슬람이 난폭한 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람의 전쟁은 전 인류를 하나로 모아 셋째 화의 점점 격화되는 전쟁을 치르게 한다. 이슬람은 세계 단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예언적 논리이며, 세계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가르친다.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슬람의 오랜 증오를 이용해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세계주의자들은 자신의 세계 단일 정부를 실현하려면 제3차 세계대전이 필요하다고 믿어 왔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다. 세계주의자들의 타락한 동기는, 그들 자신의 말로 드러난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이슬람의 역할과 부합한다.

이스마엘이 처음 언급되는 그 구절에서, 그의 예언적 DNA 가운데 아마 가장 중대한 것은, 그의 영이 곧 '들사람'의 영이며, 그가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한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화에 관여할 이들이 급진 이슬람의 몇몇 분파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 모든 종교에도 몇몇 '썩은 사과'가 있을 뿐이고 무슬림의 대다수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는, 소위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통념 역시 그들 자신의 경전과도 성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코란은 알라를 따르는 모든 이의 의무가 전 세계를 샤리아법에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창세기에서 이슬람이 처음 언급될 때에는 이스마엘의 '야인'의 영이 모든 이슬람 추종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코란은 또한 그들이 아직 대중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지배를 강요할 능력이 없는 지역에서 살 때에는 점잖은 척하라고 신자들에게 직접 가르치는데, 이는 가톨릭교와 마찬가지로이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왕국이 처음 출범했을 때 그에게 맞섰다. 배도한 개신교는 1844년에 시작되었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 곧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발견한 밀러파 재림주의가 즉시 그것에 맞섰다. 예레미야로 상징되듯, 밀러파 재림주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는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벤엘의 거짓 선지자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되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고 말았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신은 교황권과 이슬람을 나타내는 두 상징 사이에 상징적으로 놓였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그 두 진리를 보지 못하는데, 1863년에 그들이 자기들의 영적 눈을 스스로 찢어 멀게 하였고, 윌리엄 밀러가 사용한 보석들과 방법론을 덮어 감추는 과정을 시작하여, 가짜 동전과 보석, 그리고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방법론으로 재림주의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다.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은 지금 그분의 바닥을 쓸고 보석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것들을 밀러에게 건네 밀러가 자기 탁자 위에 놓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재림주의는 자신들이 1844년에 그분의 백성으로 일으켜진 남은 자들이라는 믿음에 눈이 멀어 있다.

또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두었다'고 말하려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키를 그의 손에 드시고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9-12.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회개할 수도 있는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려질 것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밀러의 메시지를 거절한 한때 언약의 백성이 문힌 바로 그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될 것인데, 이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이제 십사만 사천과의 관계에서 또한 한때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1863년의 반역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의해 예증되는데, 그는 또한 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세상처럼 되는 대신, 우리는 세상과 점점 더 구별되어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는 치밀한 공세를 펼치기 위해 교회들과 결탁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결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넓히려는 모든 시도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단호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원수의 마지막 큰 전투는 가장 결연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용감히 싸울 것이다. 이 큰 위기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편보다 세상 편에 더 가깝게 두는 자들은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세상 편에 두게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워지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세상과 동화될 시간은 없다. 다니엘은 그의 분깃과 자리에서 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서로를 해석한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진리들을 세상에 전해 준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것들이 성취됨으로써, 그것들은 스스로를 설명할 것이다.

주께서는 곧 세상의 최악 때문에 세상을 벌하시려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를 거절한 일로 종교 단체들을 벌하시려 하신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결합한 큰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업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공개적으로 순종할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며,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음을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건강 개혁을 포함한다. 곧 우리의 식단은 단순해야 하며,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식탁에 흔히 오르는 갖가지 다양한 음식들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해롭다. 정신과 육체는 최고의 건강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책임을 맡을 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훈련된 사람들만 선택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진리 안에 있었으나 의의 순수한 원칙과 악의 원칙을 분별하지 못하고, 공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흐려진 자들은 책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가지고 계신다. 만일 이러한 교훈들이 이전에 배워졌더라면, 그의 사업은 오늘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들의 불쾌감을 살까 두려워하여 진리를 목회자들이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감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관에는 온유함과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육적인 안일과 가격 가운데서 그의 섭리를 멸시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다. 그들은 그 사업의 번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모든 거짓된 길은 기만이며,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 멸망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거짓된 계획을 고집하는 자들이 멸망하도록 허용하신다. 칭송과 아침의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때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온다. 불충성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책망받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권면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죄가 갑절이다. 그들은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형벌은 그 죄에 상응할 것이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크레스 컬렉션, 105, 106.